

회 원 사 동 정

이천전기공업(주)

국내 최대규모

발전소용 펌프·모터 受注

利 川電機工業(株)는 최근 한국전
력공사로부터 국내중전업계 최대
규모의 펌프·모터를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했다.

지난 11월 30일 현대중공업, 효성
에바라 그리고 이천전기 등 3사가 치
열한 경쟁입찰을 통해, 이천전기가 단
일 프로젝트로는 국내 최대규모의 당
진화력발전소용 펌프·모터를 184억
에 수주하게 되었다.

이천전기의 이번 펌프·모터 수주는
국내중전업계의 최대규모로서 해수순
환수펌프(Φ1,650 입축사류) 16세트,
해수양수펌프(Φ1,650 입축사류 8세
트, Φ2,250입축사류 4세트) 12세트,
해수냉각수펌프(Φ600입축사류)4세트
등 총 32세트의 펌프·모터를 당진화
력발전소 1, 2, 3, 4호기의 발전소 냉
각수공급용으로 1998년말까지 분납하
게 된다.

또한, 이번 수주는 화력발전소 해수
펌프로는 최대구경(Φ2,250)으로서 설
계 및 제작이 모두 이천전기의 국내고
유기술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아울러, 이천전기는 1992년 삼천포
화력발전소 3, 4호기, 1993/1994년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용 해수펌프·
모터를 한전에 이미 납품하여 우수한
성능으로 운전되고 있다.

신아전기공업(주)

무정전 공사용
가스 개폐기 개발

가 스개폐기 전문업체인 新亞電氣
工業(주) (대표:趙俊英)가 작업시
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무정전공사용 가
스개폐기를 개발했다. 이 회사는 배전
선로의 교체 또는 보수작업시 정전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정전
공사용 가스개폐기를 개발, 공급에 나
섰다고 밝혔다.

1년간 1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이제품
은 중량 70kg으로 최소형 및 최경량
인 것이 특징이다. 윈터치 체인형 개
폐기설치공구를 적용, 설치와 철거시
간을 단축시켰다. 기존의 무거운 지중
선 가스개폐기(2백kg)를 사용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한 제품이다.

또 활선표시기능, 감상 및 결상표시
기능, 방압장치, 저압가스시 자동로크
기능, 배터리자동충전기능, 비상시 외
부충전기능 등을 부여해 안전성과 신
뢰성을 확보했다. 무정전공사용 개폐
기는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무정
전공법의 조기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

으로 전망된다.

신아전기는 최근 경기반월공장에 연
간 5백대의 무정전용 가스개폐기 양산
체제를 갖추고 내수는 물론 수출도 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주)

300kV급 가스절연
개폐장치 개발

現 代重工業(株)가 국내 최초로 초
고압 중전기류의 핵심제품인
300kV급 가스절연 개폐장치의 독자모
델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차단기는 계통최고전
압이 300kV, 遮斷電流 40kA, 通電
電流 4000A급으로 현대중공업 차단
기개발팀이 연구에 착수한지 3년여만
에 시제품을 선보였다.

이 차단기는 유압구동방식을 채택했
으며 차단방식에서도 차단접점을 한군
데로 단순화하여 외형크기와 중량을
중전보다 축소, 경량화했다.

이 제품의 개발로 현대중공업은 국
내에서 처음으로 초고압 중전기분야에
서 순수 독자모형을 확보했으며 세계
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중전기 제품 인
증기관인 네덜란드 KEMA에 의해 성
능을 인증받아 세계 일류 중전기업체
들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케 했다.

회 원 사 동 정

한편 현대중공업은 말레이시아 전력청으로부터 3300만달러 규모의 초고압 차단기 및 변압기를 수주하는 등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동남아 시장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건화상사

ISO 9001 인증 획득

(株) 建華商事(代表:鄭友慶)가 한국표준협회 부설 한국 품질인증센터로부터 송변전금구류(154kV 이상), 배전금구류(22.9kV 이상), 지중선금구류(154kV 이상), OPGW금구류(154kV 이상) 및 철탑·철구에 대한 ISO 9001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동사는 지난 28년 동안 송배전금구류 및 철탑류를 전문 생산해온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ISO 9001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동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 최상의 품질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성, 한국 철탑산업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질종고 값싼 제품을 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LG전선(주)

국내 최초 OPGW 해외 첫 輸出

LG 전선(주) (대표:權攸久)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零分散 광섬유복합 가공지선(OPGW)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회사는 최근 印度전력청과 800kV 송전라인용 광복합가공지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금년 1월부터 선적에 들어간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LC전선이 수출하는 OPGW는 최근 인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 電力化사업의 일환으로 키센푸르와 모가지역을 잇는 총연장 320km의 초고압 송전라인이다.

특히 LG전선의 이같은 수주는 선진 다국적기업인 노키아와 필립스, 스키모토, ABC社와의 경쟁에서 따내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이 크게 인정됐다는 평가이다.

이미 지난 '94년 3월 인도 전력청에 배전선로용 케이블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LG전선은 이번에 총 350만달러 규모의 광복합가공지선을 공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LG전선은 앞으로 전력망과 통신망 등 인프라사업에 투자가 급

증하고 있는 인도지역은 물론 호주, 동남아, 중국 등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마케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LG전선이 인도에 공급하는 OPGW는 영분산 광섬유를 사용해 분산현상에 의한 신호 왜곡이 없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 케이블이다.

한국원전연료(주)

제 2 회 노심관리 기술발표회 개최

한 國원전연료주식회사(사장:李昌燮)는 지난 11월 22일 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유성 아드리아 호텔 세미나실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 본사와 각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노심관리 및 원전연료 설계 관련 전문가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심관리 기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원전연료 설계 공급자와 각 원자력발전소 노심관리 및 규제기관 인·허가 실무 담당자 등 유관기관 실무자간의 기술교류를 통한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안전성의 제고와 노심관리 최적화 및 기술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발표회는, 지난해 3월 한

회 원 사 동 정

전이 제 1 회 발표회를 주관하여 개최한데 이어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가 제 2 회 발표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의 WH형 개량 원전연료 설계자립과 때맞추어 개최된 이번 기술발표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심관리 및 원전연료 설계와 관련한 최신의 기술정보를 국내 전문기관들이 모여 상호 발표·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한국원전연료주식회사의 축적된 설계기술 능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기연구소

『전력변환 기술이전』

세미나 개최

한 국전기연구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95 전력변환 기술이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생산성을 제고시켜 전력변환관련기기의 수입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키 위해 전력전자연구팀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LG

전자, 효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90여업체 대표 및 190여명의 기술자가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에 이전된 기술은 교류를 AC/DC컨버터, 교류용 단상입력 단상/3상 유도전동기 구동장치, 대출력 레이저용 Power Supply 개발기술, 교류를 저가용범용 정류기, Active Filter, 차가공용 유도가열장치 등 6가지이다.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 국산화 기자재품질

검사기술 워크숍 개최

한 국전력기술(주)(사장 : 張基玉)은 회사 창립20주년 및 신사옥 준공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원자력 국산화 기자재 품질 검사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해 보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월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력그룹협회 관련사 및 주요기기 공급자들이 참가하여 서로의 관심 사항을 집중 토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창건 원자력위원이 「원자력 안전과 품질 경영」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원전 주기 국산화 기자재 품질검사 용역 수행 경

험」이라는 주제의 韓技 하체대 품질기술처 차장, 이대웅 차장의 논문 등 6편이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한국전력연구원

'95종합연구 발표회

한 국전력연구원은 지난 11월28일 전력연구원 대강당에서 박상기 기술본부장을 비롯해 사내 전력기술연구관계자 및 관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5 종합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연구개발 수행자와 현장 실무자간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홍보 및 이해력 증진과 우수연구개발 참여진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이행사에서 연구원은 '94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된 발전분야와 송배전분야 총 39개 과제 발표회 및 우수 성과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원자력, 수화력, 송배전 등 3개분야에서 「시뮬레이터 개발」, 「배연탄황사설기술개발」, 「배연자동화연구」 등 3개과제에 대해서는 관계자 세미나를, 나머지 과제는 포스터발표도 병행 실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우수연구자 시상식에서는 고은배관계 응력 및 연구팀(팀장 백수곤)과 고

회 원 사 동 정

온배관계 응력 및 수명평가 프로그램 적용연구팀이 대상, 원전운영기술연구팀(팀장 이철연)과 수화학기술연구팀(팀장 박길웅)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날 박상기 기술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력인 상호간의 기술교류를 및 효율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 줄 것과 전력기술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력연구원은 新韓電機와 공동으로 「COS내장형 일단집지주상변압기」와 「지상설치형 변압기 보호장치」를 개발키로 하였다.

전력연구원 연구기획실 중소기업기술지원팀은 지난 11월 23일 연구개발 실무위원회를 개최, 이들 2개과제를 수행할 최우수업체로 新韓電機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 과제는 한전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LG산전(주)

등촌동에 물류센터 준공

LG 産電(株)(代表:李鍾秀)가 총 45억원을 투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차단기·분전반·자판기·각종 부품 등을 2,000Pallet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센터(강서물류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LG산전은 지난 11월 28일 李喜鍾 부회장, 李鍾秀 사장, 노조 대표 및 특약점 대표, 그리고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대지 1,700평에 연건평 1,800평 규모인 강서물류센터는 LG산전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서울 등 5대 도시에 7개 물류센터 건립계획"의 1단계로 그동안 제품별로 관리해 온 창고개념의 물류체계를 혁신, 공장에서 고객에 이르는 판매물류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배송센터이다.

앞으로 강서물류센터는 산업용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약점 및 대리점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TRS(주파수공용통신)을 이용한 『차량위치파악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물류에 적용하여 이동중인 차량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보함으로써 차량운행의 효율을 최대화시킬 수 있어 고객이 요구한 시간내에 제품을 인도하는 납기 준수율을 종전의 60%에서 99%로 향상시키는 등 물류측면에서 파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LG산전은 강서물류센터 준공으로 신속한 물류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제고와 함께 매년 약 10억원 상당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오는 '98년 전국에 6

개의 물류센터가 추가 건립될 경우에는 총 100억원 상당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원가절감 및 R&D 투자 증대로 경영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엘리베이터와 주차설비 부품을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적기에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 원활치 못한 부품공급으로 인해 나타나는 서비스 지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등 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물류효율 제고를 위해 강서물류센터는 크기가 일정치 않은 산업용 전기·전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조립식 Rack을 설치하였고, 작업능률과 안전을 고려한 작업통로 확보, 그리고 차량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5개의 입출하장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산업용 전기·전자업체로서 물류센터 건립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가전, 유통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물류에 대한 인식이 약한 국내 産電업계의 현실에서 물류혁신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종업계의 물류에 대한 관심과 투자 촉진은 물론 점차 시장이 개방되는 산전분야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LG산전은 물류혁신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물류전담팀을 강화하고 물류 전문인력을 사내에서 집중 육성할 계획인데, 이를

회
원
사
동
정

위해 물류인력의 국내외 교육 실시·고급인력 충원 등 물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LG産電은 최근 국내최초로 커피와 캔, 즉석복권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복합자판기(모델명 : LVKC - 544LB)를 개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발한 복합자판기는 1대의 비용으로 커피와 캔, 즉석복권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어 3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와 캔 이외에 5000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즉석복권의 판매가 가능함에 따라 운영자의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한 획기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단일제품으로 출시되어 있는 복권자판기가 특정은행이나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1종류의 즉석복권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이번제품은 다양한 종류의 즉석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따뜻한 커피와 시원한 캔을 동시에 판매하므로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분산제어방식을 채택하여 컨트롤러의 안정성과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능의 확장성, 기계의 호환성을 높였으며 유선리모컨의 설치로 자기진단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성과 운영자의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전조판 역시 기존의 사진현상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신세대의 감각에 맞게 일러스트로 제작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번 제품은 커피 560잔, 캔 104개, 즉석복권 200매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대용량이나 외형크기는 기존의 대용량자판기와 같은 크기(높이 1,830mm, 가로 948mm, 세로 679mm)로 옥내외 어느곳이나 설치가 가능하다.

한편 자판기 시장을 주도해온 LG산전은 이번 복권복합자판기 이외에도 향후 다양한 종류의 복합자판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지난해 단체수익계약

800억에 달해

韓 國電線工業協同組合(이사장 : 梁始伯)은 지난해의 주요 수익사업 가운데 하나인 단체적수익계약 실적 8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동구매실적은 60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전선조합의 공동사업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까지 단체계약금액이 708억 8200만원 규모로 집계돼 '94년도 같은 기간 동안의 563억8800만원에 비하면 25% 증가 됐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동구매사업은 전기동 2255MT, 절연지 42MT, 등을 포함 총 52억7490만원 규모의 실

적을 기록, 전년동기 42억2600만원보다 2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선조합은 조달청으로부터 전기동 4백MT 규모를 추가로 확보한 계획이어서 총 공동구매실적은 총 60억원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대한전기기사협회

창립 32주년 기념행사 가져

대한전기기사협회(회장 : 權龍得)는 지난 12월 13일 창립32주년을 맞아 통상산업부 관계자를 비롯, 역대회장 및 임직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센터 52층 목련실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權龍得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력기술인의 사회적 입지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리법안을 의원 입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權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협회의 위상과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전력기술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그 동안 협회 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직원으로 총무과 권명숙씨, 서울남동지부 윤효영씨, 서울북동지부 조경진씨, 충남지부 황윤숙씨, 경남동지부 이경숙씨를 비롯 윤천혁 충북지부장, 이봉섭 인천지부장 등에 대한 포상식을 갖고 공로를 치하했다.